



금융·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시장 안정 위한 모든 조치 신속히 단행

- 긴급 거시경제·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-

- 금융·외환시장 대체로 안정적, 시장 참가자들의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 당부 -
- 경제·금융상황점검 TF 가동해 24시간 모니터링 강화,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신속 추진 -
- 증권시장안정펀드(최대10조원) 준비,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·CP 매입 지속 -
- 한은 유동성 무제한 공급(RP 매입 등), 필요시 국고채 단순매입, 외화RP 매입 등 준비 -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‘24.12.5.(목) 07:00,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, 금융위원장,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·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, 최근 금융·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참석자 :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,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,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

어제(12.4) 금융·외환시장은 장 초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였으나,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발표 이후 시간이 갈수록 대체로 안정된 모습*을 보였다.

* 코스피는 개장 이후 장중 $\Delta 2\%$ 대까지 낙폭 확대되었으나 $\Delta 1.4\%$ 로 낙폭 축소 마감
원/달러 환율은 1,418.1원으로 개장했으나, 점차 하락하면서 1,410.1원 마감(15:30 기준)

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이 금융·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, 정부·한은이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해외 신용평가사(스탠다드앤드푸어스(S&P))도 우리 국가 신용등급에 “실질적 영향이 없다”고 평가한 만큼,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 보다는 냉정하고,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.

다만, 이러한 국내 상황이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, 관계 기관이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.

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 내 경제·금융상황 점검 TF를 신설·가동하여 금융·실물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(Contingency plan)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다.

정부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가 언제든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, 채권·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·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. 아울러, 한은에서도 RP매입을 즉시 개시하여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한편, 필요한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, 외화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기획재정부 <총괄>	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	책임자	과 장 정 일 (044-215-2750)
		담당자	사무관 최봉석 (bongseokchoi@korea.kr)
기획재정부	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	책임자	과 장 김희재 (044-215-4730)
		담당자	사무관 이태윤 (lty703@korea.kr)
금융위원회	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 김성준 (02-2100-2850)
		담당자	사무관 장원석 (jangwonsuk@korea.kr)
한국은행	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	책임자	팀 장 박성진 (02-759-4777)
		담당자	과 장 최 신 (shin@bok.or.kr)
금융감독원	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	책임자	팀 장 김정훈 (02-3145-8180)
		담당자	수 석 신상주 (hipotes@fss.or.kr)